

구역:

이름:

<p>2월 26 월요일</p>	<p>사사기 1장-4장 □ (핵심장 2장) □</p>	<p>*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보기 드문 이스라엘의 순종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나 버립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달리 처절한 실패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 지파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사기는,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는데 실패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습니다. 사사기 3장은 이런 처절한 반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옷니엘과 에훗, 삼갈과 드보라의 이름을 기억합시다.</p>
<p>문제</p>	<p>“ 여호와께서 ()을 세우사 ()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하지 아니하고 ...”</p>	
<p>2월 27 화요일</p>	<p>사사기 5장-8장 □ (핵심장 5장) □</p>	<p>*큰 용사들이 나타났으나: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부대가 패합니다. 이 싸움에 앞장선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동적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감격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미디안 자손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는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팔과 횃불, 향아리를 사용하여 미디안을 격파하고 후에 위대한 왕들까지 죽이는 전공을 세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예배하도록 두었고, 스스로 왕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아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사사가 되어 자기 민족을 어둠 속에 빠뜨립니다.</p>
<p>문제</p>	<p>“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우유를 귀한 ()에 담아 주었고”</p>	
<p>2월 28 수요일</p>	<p>사사기 9장-12장 □ (핵심장 11장) □</p>	<p>*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 사사기 10장부터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은 사사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사사 둘라는 별다른 업적이 없었고 사사 야일은 아들 30명이 30개 고을을 가졌다는 기록만 남깁니다. 심지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불량한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을뿐 아니라, “승리를 주시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째로 드리겠다” 라고 승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가나안 풍습에 따라 잘못된 소원을 하고 이행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의 빛이 비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언약은 깨지고 말까요?</p>
<p>문제</p>	<p>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11장)</p>	

<p>2 월 29 목요일</p>	<p>사사기 13 장-16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6 장) <input type="checkbox"/></p>	<p>* 삼손, 이스라엘의 빛이자 어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빛이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십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자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 봐도 삼손의 행동은 나실인답지 못합니다. 여색에 빠져 나실인 규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믿었던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그 바람에 포로로 끌려가 양쪽 눈을 잃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며 장렬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삼손보다 나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녕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디다.</p>
<p>문제</p>	<p>“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되었음이라”</p>	
<p>3 월 1 금요일</p>	<p>사사기 17 장-21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7 장) <input type="checkbox"/></p>	<p>*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삼손의 죽음 이후, 사사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제사장 가문이 아닌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레위인의 첩이 능욕 당하고 죽은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철저히 배척합니다. 공중분해 직전에 베냐민 지파를 구원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행동 역시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만 같습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사사기 17:6)</p>
<p>문제</p>	<p>“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을 세워 그의 ()으로 삼았더라”</p>	
<p>3 월 2 토요일</p>	<p>룻기 1 장-4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4 장) <input type="checkbox"/></p>	<p>*이방에서 비치는 구원의 빛: 한 가정이 사사기 혼란스러운 시대를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옵니다. 곧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따르며 섬겼습니다. 나오미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역 유지인 보아스의 보살핌을 받으며 굶주림을 면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대로 자기 가족에게 상속한 땅을 찾고 싶었던 나오미는 이를 위해 “기업 무를 자”로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어둠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p>
<p>문제</p>	<p>“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을 낳았고 오벧은 ()를 낳고 이새는 ()을 낳았더라”</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